

“선수행자여 아만을 없애라”



④3 간화선

‘무’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 등 화두 참구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선 공부법을 ‘간화선(禪話禪)’ ‘화두선’이라고 합니다.

간화선은 1134년 경 중국 송대의 유명한 선승 대혜(大慧, 1088-1163) 선사에게 의해 성립됐습니

과 공안선의 폐단, 목조선이 지나치게 ‘무심(無心)’ ‘무사(無事)’로 흐른 나머지 무사안일에 빠진 데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겼다고 합니다.

송나라가 여진족(금나라)의 공격으로 국가존망 위기의 상황에서 한가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국가가 피폐해 무력해진 상황에서 침묵하는 무사안일한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식, 시대의식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화선은 태생적으로 기존의 선법인 문자선과 공안선, 목조선 등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론 좀 일방적인 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행 방법을 확립시키고자 하다 보니 비판 일변도로 가게 됐는데, 그 결과 과거 조사선 시대의 여유 넘치

무분별 직관적인 방법으로 참구하는 것이 ‘간화선’ 화두로 분별 망상 버리고 본래 청정한 불성 깨달아야

다. 그 이전엔 중국의 전통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선이 있었고 동시대에는 광지장각 선사(1091~1157)가 만든 목조선이 있었습니다.

간화선에서 ‘간(看)’은 ‘주시하다’ ‘참구하다’는 뜻이고, ‘화(話)’는 ‘화두(話頭)’를 가리킵니다. 즉 ‘화두를 참구한다(禪話)’는 뜻입니다. ‘참구한다’는 말은 ‘탐구한다’는 뜻인데 요즘처럼 분석, 분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무분별 즉 직관적인 방법으로 참구하는 것입니다.

간화선의 대표자 대해 선사는 자신의 저서 <서장>에서 “일체의 사랑 분별심과 차별심을 버리고 오로지 그곳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있다 없다’는 ‘상대적인 무’로 생각하거나 ‘참으로 없는 무’로 생각하거나 ‘현묘한 이치나 심오한 도리가 들어 있는 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추측하거나 천착하지도 말고, 일체의 언어문자나 사랑 분별심을 버리고 오로지 무자만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두를 통해 분별 망상을 버리고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심 즉 본래 청정한 마음(불성)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화선에서 참구하는 대표적인 화두는 ‘무자화두’ 외에도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 ‘동산수상행’ ‘일구흠진 서강수’ 등 7-8종이 있습니다.

간화선은 대혜종교 선사에게 의해 완성됐지만 처음 화두를 개발한 분은 오조법연(五祖法蓮, ?-1104) 선사입니다. 오조법연 선사는 처음으로 조주 선사(778-897)와 어느 신참삼 사이에 오고간 선문답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는 공안에서 조주 선사의 답이던 ‘무’ 한 글자를 뽑아서 제자들에게 참구 과제로 주웠습니다. 이것이 손재자인 대혜종교에 이르러 체계화된 것입니다.

간화선의 성립 배경은 선의 세계를 선사나 계승 등 문학적 수사로 표현, 설명하는 문자선(文字禪)

은 선의 생활과 문화, 과학적이며 재치 있는 선문답으로 참선자들의 닫힌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풍요로운 선의 정신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간화선 역시 천여 년이 흐르자 오늘날에는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서 좀 변질돼 깨달음의 정의와 수행법 등을 무시한 채 정진적 영적체험을 추구한다든가 신통술 등 신비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도교적인 색채로서 선사에서 말하는 수행도 깨달음도 아닙니다.

근래에는 일부 수행자 사이에서 ‘오매일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 ‘실제 깊은 잠 속속면(속면)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잠이 깬 들어서도 화두공부가 돼야 한다(오매일어)’는 말로 이해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에서 나온 난센스입니다.

‘오매일어’란 오매불망과 같은 뜻으로서 ‘자나 깨나 오로지 일심으로 화두를 참구하라’는 뜻입니다. 마음 상태를 오매일어가 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일심으로 참구하라, 그러면 깨달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두 참구하는 이들의 단점은 대부분 아만이 많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화두 외에는 모두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기 주장 외의 타인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전도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중도와 무진착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정반대로 아만과 자존심, 고집,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닐 것입니다. 아만을 없애는 것이 선수행의 급선무입니다.

간화선은 중국에서 생긴지 약 60-70년 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고려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입했는데, 진각·나옹·태고·서산·경허·한암 등 선승들이 계승·발전시켰습니다. 간화선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윤창화 민족사대표

깨달음 여인들의 수행법

“참회·계행 없는 염불수행은 사상누각”

④ 독고황후

문헌황후 독고씨(文獻皇后 獨孤氏, 543~ 602)는 중국 수(隋)나라 문제(文帝)의 황후로서 ‘독고황후’로 잘 알려져 있다. 수나라 최초의 황후인 그녀는 수문제 양견의 정실부인으로서, 원래 이름은 독고가라(獨孤加羅)이다.

황후는 황실에서 정토염불을 닦은 신심깊은 우바이로서, 인도 위제(維) 부인에게 비견되는 인물이다. 마갈타국 빈비사라왕의 황후이며 아사세왕의 어머니인 위제희 부인의 청(請)으로 부처님께서 <불설관무량수경>을 설하셨듯이, 독고황후의 염불수행으로 중국에서 정토종이 널리 퍼지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연중집요>에 따르면, 독고황후는 궁중에 있으면서 대승(大乘)을 존경하고 사모해 항상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염불할 때는 반드시 먼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수향(沈水香)을 집어서 입을 깨끗이 했다고 전한다. 황후는 인수(仁壽) 2년 8월 갑자일에 영안궁(永安宮)에서 운명했는데, 지상에서는 말을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고 천악(天樂)이 하늘에서 떨어졌었다.

수문제가 사제사나(闍提斯那) 스님에게 “무슨 길한 조짐이나?”고 물었더니, 사제사나 스님은 “정토에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황후가 정토에 왕생하셨으므로 이런 길조가 있사옵나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황후의 신분으로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도 염불할 때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향을 사르며 정성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을 염한 것이다.

하늘음악이 들려오고 천상의 향내음이 진동했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남모르게 일념으로 정진했음을 알 수 있다.

<연중집요>의 편찬자는 ‘잔(贊)’을 통해 ‘궁중의 ‘부귀와 총애(貴寵)’를 버리고 정토를 배배 왕생한 이로서, 예전에는 위제(維提)가 있었고 지금은 이 분을 보겠다’고 찬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사에서 ‘중국의 위제희 부인’으로 칭송받는 독고황후는 중국사에서는 ‘질투의 화신’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다. 602년 8월, 독고황후가 향년 60세로 영안궁에서 한질로 병사한 후에야 수문제가 비로소 거리낌없이 빈비(妃嬪)들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하니, 당시 황실의 법도와는 맞지 않게 황제에게도 금욕을 강요한 셈이다.

이처럼 질투심이 대단한 그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인자하고 존경받는 황후였다 한다. 또한 자신의 장남 양옹이 행살에 문제가 있자, 양견에게 건의해 폐출시키고, 그 자리에 차남 양광을 세웠다.

황후는 말년에 자신의 질투심과 그로 인한 악행을 참회하고 오로지 염불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참회와 계행이 없는 염불수행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나 말빠진 향아

수나라 최초 황후, 염불정진으로 정토종 확산 공헌 육바라밀 공덕 지어 중생제도하는 것이 대승보살도

리에 불불기와 다를 없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수경>에서 위제희 부인에게 ‘불국토에 가서 나고 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며 이렇게 설하셨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손히 섬기며, 자비심으로 산 것을 죽이지 않고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 둘째, 삼보에 귀의하고 여러 도덕 규범을 지키며 위(威儀)를 범하지 말 것이니라. 셋째,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밟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남에게도 이 길을 권해야 한다. 이를 청정한 업이라 하느니라.”

우리의 청정사상은 본래 선악을 초월한 자리이지만, 선악을 초월한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공덕을 지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대승보살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계시판

●사띠파타나 위빠사나 집중수행=연방측선원은 12월 1-10일 용인 행복선원에서 사띠파타나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지도법사 범주 스님이 매일 인턴부와 담마토코를 진행하고 동참금은 자율보시다. 총회근 수행이 가능하며 참여일은 본인 자유. (031) 286-0265

●아비담마 특강 법회=수행공동체 제파와나는 12월 12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8시 서울 상도선원에서 아비담마 특강 법회를 개최한다. 일목 스님은 아비담마 개론, 인식과정, 마음과 마음부수

(心附隨), 물질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일반 8만원, 학생 5만원. (02)815-0198

●불교서술전문강당 수강생 모집=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술전문강당(학장 정화 스님이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009년 3월부터 서울 법륜사에서 2년 간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 진행된다. 조계종 소속 스님 60명과 재가자 20명을 대상으로 <초발심자 경문> <서장> <법화경> 등 전통 강원 교과목을 강의한다. 입학원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조계종 교육원으로 11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2011-180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신는 본가는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팩스 02)512-2736
http://www.avatarcntr.com.kr
E-mail: heegyun@avata21.com

왜 「호시육임복변집」(좌정용) · 「호시육임산책」(휴대용) · 「호시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 이어야 하는가?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흉내내서도 안되는, 고복자 호사만의 적중도와 효과성을 제고시킨 쉬운(易) 활용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일 제 1편

一. 시보(時報) : 매일 매시간마다 아래 8가지의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왜 왔는가? 왜 전화했는가? 무슨 일인가? 2. 바깥 일인가? 집안 일인가? 3.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4. 어떤 사정이 있는가? 5. 후퇴할 일인가? 전진해야 할 일인가? 6. 될까? 안될까? 7. 오늘 어떤 좋은 날인가? 어떤 나쁜 날인가? 8. 오늘 몫사가 어떤 좋은 시간인가? 어떤 나쁜 시간인가?

각일 제 2편

二. 내정(來情)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아래 15가지의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이 사람의 현재 전체적 사정은 어떠한가?
2. 이 사람의 세부적인 여러 사정은 무엇 무엇이 또 있는가?
3. 지금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박두해 있는가?
4. 이 사람의 현재 가정사정은 무엇인가?
5. 이 사람과 관계된 상대의 실력은 이득 · 피해 · 손해 · 무력인 중 어느 것인가?
6. 이 사람은 부자인가? 귀인인가? 빈한자인가? 천한자인가?
7. 이 사람이 유리한가? 이 사람의 상대가 유리한가? 모두 좋은가?
8.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인가? 이 사람의 상대한테 당한 일인가?
9.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인가?
10. 이 사람의 뒷사람이 유리한가? 아랫사람이 유리한가? 여자쪽이 유리한가? 남자쪽이 유리한가?
11. 새로운 일인가? 오래된 일인가? 반복되는 일인가?
12. 드러내도 좋은 일인가? 감추고 싶은 일인가?
13. 이 사람의 정황을 요약해 말하자면 어떤 것인가?
14. 이 사람이 시험 · 선거 · 관공직사에 대해 묻는다면 될까? 안될까?

각일 제 3편

三. 형이상(形而上)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아래 6개 큰 항목과 15개 작은 항목마다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침범하여 일이 꼬이고 있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것인가?)
2.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침범하여 병이 생겼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것인가?)
3. 이 사람에게 무슨 부정법(邪藥)이 들어 우월이 있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것인가?)

4.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산소탈은?
가. 산소탈 해당 육친(肉親)은? 나. 산소탈 해당 묘지 주산(主山) · 좌향(坐向)은? 다. 산소탈 이유는?
라. 산소탈 묘지 물형(物形)은? 바. 산소탈 해당 묘지 앞 경관(景觀)은? 바. 산소탈 해당 묘지 수 상태는?
사. 산소탈 침범 제해(災害)는? 아. 해소시킬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누가 수법(修法)을 해야 효과가 있는가?
자. 수법 택일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아니면, 며칠 후 언제로 택일할 것인가?
5. 이 사람의 흥세(凶勢)는 언제 끝나는가?(기도 일수를 어느 시기로 맞춰야 효과적인가?)
6. 이 사람의 모방사(계획)가 되는 日 · 月 · 年은 언제인가?

각일 제 4편

四. 사과삼정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초사(初辭) ㉠ “호시요결” ㉡ “직지요결”을 답고, 사정 · 형편 · 전제 감흥을 다음 “예”와 같이 적시해놓았습니다.
1. 예문(例文) : 庚寅日 第四局
가. “가장은 집을 결되고 집은 옮겨야 겠고 소송사는 벌이지고... 낮 - 전사귀, 밤 - 번사귀 침범 때문이네! 지금 시작하는 신규사까지 방해 받고있어!”
나. “내가 상대에게 구하러 예를 다하여야 한다. 누가 재앙을 일시 풀어준다해도 도리에 나중에 재앙의 씨앗이다”
2. 내외(內外) 어느 쪽에서 발단된 일인가? 3. 내방 조정은 어떠한가?
4. 길방(吉方)은 어디인가? 5. 택일(擇日)은 몇 일로 할 것인가?

각일 제 5편

五. 천장법(天罡法) : 매일 각 시간마다 아래 3개 항목에 대한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계획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2. 이 사람의 천성이 선(善)한가? 악(惡)한가? 보통(普通)한가?
3. 승부 · 전쟁 · 상담 · 담판 등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느 쪽에 있어야 하는가?(장(長)시간일 경우와 단(短)시간일 경우로 구분했음)

각일 제 6편

六. 천지반(天地盤) : 「피」를 알고 판단하는 법칙을 적용, 각 「日」마다 해당 답(答)을 아래와 같이 11가지로 나누어 달았습니다.
1. 부정침범자 2. 관재자 여부 3. 질병자 여부 4. 궁재자 여부

5. 불성신자(종교 · 신명 · 복명)자 여부 6. 운명전도자 여부 7. 직능김사자 8. 승진이동자 9. 귀인발현자 10. 본인재액자 여부 11. 친척재액자 여부

각일 제 7 · 8편

七. 성부단정(成否斷定) : 여기에서는 - 찾아오거나 전화한 사람이 묻는 항목에 대한 답(答)을 아래 23개 항목으로 정(定)해 모두 그 성부 여부를 달아 놓았습니다.
1.모방사 2.공명사 3.구제사 4.구직사 5.사형사 6.결혼사 7.임신사 8.가정사 9.이동사 10.소송사 11.질병사 12.매매사 13.출행사 14.도난사 15.가출사 16.대인사 17.면접사 18.재용사 19.투자사 20.승부사 21.가작사 22.모자사 23.기후사

각일 제9-20편

八. 1년신수(一年身數) : 매년 각 월의 내외 길흉사를 해당 국수별로 크게 보정시켜 적시해 놓았습니다.

각일 통합 편

九. 육임심활용(心活) : 우리 활인천역자가 요긴하게 쓰게 되는 신살을 모아 한눈으로 적시했습니다.
十. 호시육임사주감정법 활용편 : 사주(四柱) 뽑고 대운(大運) 적고...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일주(日柱)만 알면 명(命) · 운(運) · 병(病) · 육친(六親)의 변수까지 모두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둔 육임사주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十一. 출생일주(日柱)육임공합법 : 일주(日柱)에 의한 평생 배우자 복분 · 해해를 즉시적으로 판단해 내는 육임비법이 활용 양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十二. 부록이 따라갑니다 : 본 활용서는 고도의 육임비법을 항목마다 적용해 놓았으므로 쉽고도 예리하여 정곡을 찌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사족(蛇足)일 망정 각 항목별 부연설명을 해놓았으므로 이를 학습하면 판단의 효과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十三. 설명 CD가 따라갑니다 : 다시 위 각 면의 항목 비술들에 대한 설명을 부록과 함께 「고복자 호사」 저자에게 해주셨습니다. 2시간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모두는 가장 어렵다는 육임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활인천역의 소질이 있고 굳은 신념만 있다면 누구든 즉시적으로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된 비서(秘書)이고, 저자가 7년간에 걸쳐 때고 보태고 갈고 닦아 최후로 완성시킨 신력서(神力書)입니다. 단, 가격이 비싼게 흠이긴 하나 효과성에 비하면 매우 싼 값임을 주지해 드립니다.

한국육임학회 www.taotemple.net 총재 고복자 호사

서울본회 02-833-8683 담당: 임근홍 (우리1002-037-559124 정용철) / 부산지회 051-908-8683 담당: 진민경 (농협 121059-56-023257 진세리)